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동물속담  
비교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정 임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동물속담  
비교 연구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정 임

## 인 준 서

이 정 임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서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언어의 문제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다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언어적인 문제 이외에도 문화라는 크고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다른 문화권간의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어학적인 능력과 더불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본 연구는 문화학습자료중의 하나로 속담을 선택하여 연구 하였다. 속담은 각 민족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 경험, 관습, 윤리의식등이 간결하면서도 재치있게 표현된 말로 그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지혜, 민족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속담은 훌륭한 문화학습자료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미 문화권 속담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을 선택하여 연구 하였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에 등장하는 각 동물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양 문화권 속담들은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속담 속에

나타나는 각 동물들의 표현상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통하여 양 문화권 속담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서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양 문화권의 동물속담중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은 동물들을 순서대로 선택해서 그 동물속담들을 주제별로 나누었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의 주제는 크게 ‘품행’, ‘인생’, ‘생활’등 3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동물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표현들이 많았다. 양 문화권 속담들의 주제를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비슷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양 문화권에서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속담의 표현과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다.

양 문화권 속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속담이 갖고 있는 간결성, 교훈성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 문화의 특성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을 통해 문화적 배경을 익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영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1. 서론 . . . . .	1
1. 연구 목적 . . . . .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 . . . .	2
2. 속담의 정의와 기능 및 특징 . . . . .	4
2.1 속담의 정의 . . . . .	4
2.2 속담의 기능 . . . . .	5
2.3 속담의 특징 . . . . .	6
3.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동물속담 . . . . .	13
3.1 양 문화권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과 속담의 주제 . . . . .	13
3.2 양 문화권 동물속담의 주제별 분류 . . . . .	18
4. 결론 . . . . .	75

## 참고문헌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 목적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문화적 국경이 붕괴되어 지구촌화 되어 감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간, 인종간, 문화권간의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극복 한다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언어적인 문제 이외에도 문화라는 크고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가까워질수록 문화권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기능 해결 외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문화적 충격에서 오는 심리적인 거리감 때문에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훌륭한 양 문화간 의사소통이 달성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에서의 문화교육 병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학습자료중의 하나로 속담을 선택하여 연구를 하였다. 속담은 그 민족 그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그 민족 조상 전래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염원 등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축소 응결되어 있는 민속언어로서, 그 문화의 역사, 종교, 미신, 풍속, 제도,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담을 통한 문화적 배경의 이해야말로 효율적인 영어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속담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

하고 친근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동물에 관련된 속담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한국 속담과 영·미 문화권 속담 속에 등장하는 각 동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양 문화권 속담들은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면서 양 문화권 속담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서로 비교, 연구하였다. 각 동물들을 소재로 하는 양 문화권 속담들 속에서 동물들을 바라보는 양 문화권의 시각적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찾아내면서 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양 문화의 이해를 유도하여 영어학습에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와 방법

속담에 대한 연구는 보통 크게 속담의 형식면과 내용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속담의 내용면에 치중을 하여 속담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속담의 주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 문화권의 속담 하나 하나를 주제별로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 문화권 속담에 등장하는 각 동물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러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양 문화권 속담들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기에 간단히 크게 ‘품행’, ‘인생’, ‘생활’ 3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

양 문화권의 속담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담의 소재로 등장하는 동물들 중에서 출현하는 빈도수가 많은 동물들 순으로 양 문화권 사람들에게 친근한 동물이나 또는 가깝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몇 동물들만 선택하였다.

양 문화권 문화의 비교를 위해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 동물속담들도 예문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비록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로 현재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속담들이지만 양 문화권 조상들의 경험이나 지혜를 나태내는 것이기에 현재의 양 문화권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 동물속담의 예와 속담의 주제 분류 그리고 동물의 종류 선택은 전적으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속담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① A Dictionary of American Proverbs
- ②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roverbs
- ③ 고사성어, 속담해설
- ④ [www.Hometopia.com/proverb](http://www.Hometopia.com/proverb)
- ⑤ [www.twinpapa.com.ne.kr](http://www.twinpapa.com.ne.kr)
- ⑥ [www.urimal.cs.pusan.ac.kr](http://www.urimal.cs.pusan.ac.kr),

## 2. 속담의 정의와 기능 및 특징

### 2.1 속담의 정의

속담(proverb)이란 말은 원래 Latin어에서 나온 말로 원어는 “세상에 알려진 말(Proverbium)”으로 pro는 앞(forth)을 뜻하며 verb는 말(word)을 ium은 접미사(collective suffix)로 영어로 번역하면 ‘대중 앞에서 드러내어 하는 말(set of words of forth)’이 된다.

The Columbia Electronic Encyclopedia 에서는 속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사회의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혜나 조언이 담긴 짧은 말. 경구보다 좀더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을 나타내며 보통 은유나 두운 또는 각운으로 표현된다.” 또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평범한 진리나 유용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짧은 대중적인 말이다.”(Stein 1973, 1157) 그렇기 때문에 속담은 흔히 “old saying”이나 “wise saying”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속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간의 격언으로 교훈, 풍자, 경험, 유희 등의 뜻이 담긴 짧은 말”(이희승 1982)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알기 쉬운 격언, 또는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이야기”(국어국문학회 1990)라고 풀이하고 있다. 양문화권의 속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속담이란 “오랜 세월동안 대중의 생활에서 우러나온 인간의 경험과 민족의 지혜가 담긴 관습적이고 간결한 대중의 말”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속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나타낸 proverb의 동의어를 찾아보면 maxim, adage, motto, saying 등이 나와 있는데 특히 격언(maxim)은 속담과 거의 유사하게 통용되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속담과 격언(maxim)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에서는 “격언은 행동이나 지각의 규범 역할을 하는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짧은 말이다”라고 되어있고, “속담은 사람의 상식과 실질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진리로서 종종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보통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고 되풀이되는 말이다”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속담과 격언(maxim)은 그 구별이 매우 어려우나 격언(maxim)은 교훈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제로 행동의 규범이 되고 있으나 속담은 격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표현되고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 2.2 속담의 기능

속담은 그 기능에 따라서 비판적·교훈적·경험적 속담으로 나눌 수 있다. 비판적 속담은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이 상대방의 아픈 데를 찔러 기선을 제압하는 데 쓴다. 교훈적 속담은 격언과 비슷한데, 중국의 고전이나 불교의 경전에서 온 ‘의식(衣食)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가 그 예다. 경험적 속담은 오랜 경험 끝에 체득한 지식을 알기 쉬운 말로 정리한 것이 많은데, ‘등잔 밑이 어둡다’, ‘비온 뒤 땅 굳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가 그 예에 속한다.

## 2.3 속담의 특징

1) 속담은 간결성을 지닌다. 속담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빈부, 노소, 귀천의 차별이 없는 대중이기 때문에 속담은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쉽사리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속담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간결성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아 영·미 문화권 속담에 있어서 한 속담 안에 10 단어 이상을 포함한 경우가 드물며 한국 속담의 경우도 음절수로 보아 10음절 전후의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긴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He that buys land buys many stones : he that buys flesh buys many bones; he that eggs buys many shells, but he that buys good ale buys nothing else'(박명규 1999, 9) 이것은 he that buys를 반복하여 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기억에 남게 하는 영국사람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물품구입에 관한 흥미 있는 그들의 관심의 일면을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물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긴 속담도 존재가치가 있어 보존하고 있다고는 하나 형식면에서 볼 때 속담의 본질적인 특징은 역시 간결성인 것이다.

2) 속담은 간결성을 뒷받침 해주는 운율적 조화를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듯이 운율(rhythm)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대단히 큰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많은 속담에서 운율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운율을 살리기 위하여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두운(alliteration)과 각운

(rhyme)의 사용이다.

두운의 예

- ① Better an egg today than a hen tomorrow.
- ② Care killed the cat.
- ③ Fortune favors the fools.
- ④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 ⑤ Practice makes perfect.

각운의 예

- ① Honesty is the best policy.
- ② Might is right.
- ③ Man proposes, God disposes.
- ④ No news is good news.
- ⑤ Seeing is believing.

그밖에 선명하고 강한 느낌과 효과적인 기억을 위해서 동음어나 대조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동음어 반복의 예

- ① Like father, like son.
- ② Little bird, little nest.
- ③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대조어 반복의 예

- ① The more cows, the less milk.
- ② Quick choice, long repentance.
- ③ Least said, soonest mended.

대부분의 한국 속담은 전통시가의 기본 음수율인 4음절의 반복으로 되어있고 영·미 문화권 속담과 비슷한 동음구성이나 대조구성을 사용한 속담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전통시가의 기본 음수율의 예

- ①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②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동음어구성의 예

- ①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
- ②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대조어구성의 예

- ①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 ②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속담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외형 구조상의 조화는 속담은 구어로 쓰이고 대중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3) 속담은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은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 표현을 쓰면 우리의 주관적 인상이나 감정적 판단이 듣는 사람들의 공통의식에 호소해야 하는데 사람의 공통의식에 호소하는 데는 지성보다는 감정이 더 유리하고 일차적으로 감정을 원동력으로 하는 은유적 표현이 감화적 효과가 크다.(이용주 1963, 65-66) 예를 들어 “뱀새가 황새를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에, 이 속담의 기본 의미를 “남이 한다고 제 힘에 겨운 일을 하면 도리어 낭패를 당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뱀새’, ‘황새’의 이미지로 말미암아 더 강한 정서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4) 속담은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를 지닌다. 속담을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은 속담의 기본 의미만 전달하기 위하여 속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속담을 말할 때 그 속에는 기본 의미 이외에도 교훈적 또는 풍자적 의미를 함축 의미로 지닌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인용한 속담은 상대방에게 “남이 한다고 당신의 힘에 겨운 일을 하면 실패하니까 그 일을 하지 마라”라는 교훈적 의미 또는 “남이 한다고 당신의 힘에 겨운 일을 하여서 실패한 것이다”라는 풍자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5) 속담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많다. 속담의 기본 의미는 동일한데 형태가 다른 속담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속담에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본 의미를 표현하는 속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에 가야 뱀을 잡지.

서울에 가야 과거에 급제하지.

눈을 떠야 별을 보지.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산엘 가야 평을 잡고 바다엘 가야 고길 잡는다.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입을 보아야 아이를 낳지.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지.

그리고 영·미 문화권 동물속담에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라는 기본 의미를 표현하는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here's more than one way to skin a cat without tearing the hide.  
More than one way to shoe a horse.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kill a frog.  
There are more ways to kill a dog than by choking him to death on hot butter.

유의 관계에 있는 속담이 많이 생기는 이유로는, 속담이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 구어로 주로 쓰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담을 말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상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6) 속담은 속담을 말하는 상황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의 관계에 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속담을 말할 때 자주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속담에 쓰인 어휘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붓짐 내라한다”라는 속담에서 ‘붓짐’이 가리키는 지시물을 요즈음 보기 어렵고 그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붓짐’이란 단어는 그것과 거의 유의 관계에 있으며 요즈음도 종종 쓰이고 있는 ‘보따리’로 대치되거나 또는 ‘붓짐’의 기능을 현대에서 대신하는 ‘가방’으로 대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속담의 기본 의미가 지니는 교훈성은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 문화권 속담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It is a sad house where the hen crows louder than the cock(수탉보다 암탉이 더 크게 우는 집은 좋지 않다)”라는 속담의 기본 의미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으므로 각각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흥한다”와 “It is a happy house where the hen crows louder than the cock”으로 형태가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속담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속담의 기본 의미는 기억하나 언어 형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사람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을 자신이 잘 아는 유의적 표현으로 대치하는 등의 방법을 탐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라는 속담에서 ‘감’과 ‘배’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 맥락상 유의적 표현인 ‘밤’과 ‘대추’로 각각 대치하여 “남의 잔치에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한다”라고 사용하여도 속담의 기본의미는 동일하게 전달된다. 또한 “Better a big fish in a

little puddle than a little fish in a big puddle"라는 속담에서 'fish'라는 단어대신 'duck'로 대치하여 "Better a big duck in a little puddle than a little duck in a big puddle"이라고 사용하여도 속담의 기본 의미는 동일하게 전달된다.

넷째, 속담은 구어로 주로 쓰인다. 따라서 속담을 사용하다가 원래 형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말을 주고받다가 발음상 유사한 다른 말로 잘못 들어 엉뚱하게 다른 형태로 받아들임으로서 속담의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억지로 절 받기"에서 '억지로'는 "옆드려 절 받기", "옆질러 절 받기"에서 '옆드려'나 '옆질러'와 음성상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한국과 영·미 문화권의 동물속담

#### 3.1 양 문화권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과 속담의 주제

동물은 인간에게 의복, 양식, 농기구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인간들과 공존하여 왔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동물들은 우리 인간생활에 크게 관련을 맺었으며 속담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 문화권 속담에서 나타난 모든 동물들을 다루지 않고 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물들 순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양 문화권 속담중 한 속담에 동물이 두 종 이상 겹쳐 등장하는 속담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개가 쥐를 잡고 먹기는 고양이가 먹는다.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

While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Cows can't catch no rabbits.

위와 같은 속담들은 하나의 동물속담에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동물속담에 포함시켰다.

양 문화권 속담에서 공통적으로 빈도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동물에는 개, 말, 소, 돼지, 닭, 고양이 등 주로 사람과 주거를 같이하는 동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등 사람들의 생활과 가깝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므로 속담의 소재로 많이 등장했던 것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영·미 문화권에서는 속담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지 않는 호랑이가 한국 속담에서는 개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게 속담의 소재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호랑이가 한국 동물 속담의 소재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이 호랑이의 모습과 유사하며 또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도 야수성을 가진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살아있는 호랑이를 신으로 받들고 제사까지 지내는 등 호랑이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였으며 풍수설에서도 중요시되어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에서는 호랑이를 서쪽을 수호하는 방위 신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설화에서도 호랑이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신령스러우면서도神通한 능력을 지닌 영물로, 자유자재로 변신하여 인간과 교류하기도 하며, 인간의 행위에 감동된 호랑이가 인간을 도와주거나 또는 인간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영·미 문화권에서는 호랑이를 단지 맹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호랑이는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로 경외의 대상으로 비춰진다.

동물속담들은 하나 하나의 속담마다 그 속에 간직한 의미가 제각기 다르다. 동물속담들을 자세하게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속담에서 나타나는 양 문화권의 동물들을 크게 품행면, 인생면, 그리고 생활면 3가지 주제별로 분류

하여 그 모습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3가지 주제 외의 속담들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사람의 선하고 악한 성품이나 행실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속담들은 품행면에 분류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겪게 되는 개인의 여러 가지 현상과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사회 전반에 비쳐지는 사회현상과 양상들은 인생면에, 그리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방식이나 생활태도 등은 생활면에 분류하였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에서 표현되는 주제는 대부분이 ‘생활’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속담자체가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까이서 보고 느낀 점을 인간의 생활에 투여하여 보다 나은 생활방식과 생활태도를 갖게 하는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품행’에 관한 내용도 ‘생활’과 함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품행’에 관련된 의미로는 ‘위선’, ‘욕심’, ‘배은망덕’, ‘못된 행동’, ‘경망스러움’, 등이 있다. 이런 의미는 동물들의 부정적인 속성과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들의 추악하고 못된 성품이나 행동에 투여되어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는 속담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들 동물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를 소재로 한 한국 속담에서 ‘품행’에 관한 내용이 다른 속담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개의 부정적인 모습이 묘사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와 합성어를 이루는 ‘개대가리, 개똥, 개자식, 개팔자,’ 등의 단어들이 못된 성품이나 행동에 대한 욕으로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생’에 관한 내용도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것은 동물의 생애가 인간의 생애와 똑같다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속담은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말하는 상황에 따라 형태의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양 문화권 동물 속담에서도 속담의 기본 의미는 동일한데 언어표현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속담에서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 ‘닫는 말에 채찍질’, ‘닫는 말도 채를 치렀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닫는 말에 채질 한다’는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표현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An ass is an ass, though laden with gold’와 ‘A donkey is but a donkey though laden with gold’는 같은 의미로 당나귀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기본 의미가 동일한 속담들은 모두 하나의 속담으로 보고 같은 주제로 구분하였다. 반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와 ‘Don’t count your fish before you get them’는 사람들에게 ‘서두르지 말라’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속담으로 똑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속담의 소재를 각각 ‘닭’과 ‘물고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다르다. 위와 같이 기본 의미는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른 속담들은 동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속담으로 구분하였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에 각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의 수, 그리고 주제별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동물이 등장하는 속담의 수와 주제별 빈도수

주 제 동 물	영·미 문화권 속담					한국 속담				
	개수	품행	인생	생활	기타	개수	품행	인생	생활	기타
개	141	25	26	45	45	272	82	58	51	81
말	93	17	13	38	25	55	16	8	12	19
소	66	10	10	16	30	94	18	20	21	35
돼지	49	10	5	18	16	22	5	3	3	11
닭	51	4	10	16	21	53	8	9	11	25
고양이	45	8	10	9	18	50	17	9	11	12
새	38	5	2	14	17	28	3	5	8	12
물고기	42	1	5	22	14	27	3	9	10	5
당나귀	30	9	1	9	11	17	4	2	2	9
토끼	16	2	2	8	4	13	5	5		3
쥐	12	3	1	4	4	59	11	9	11	28
개구리	12		2	6	4	10	4		4	2
파리	13	1	1	7	4	21	8	4	4	5
까마귀	11	5		1	5	27	2	5	4	16
벌레	11	2	1	5	3	13	4	1	3	5
벼룩	9	2	1	5	1	10	5			5
호랑이	10	4	1	1	4	108	20	31	24	33

## 3.2 양 문화권 동물속담의 주제별 분류

### 3.2.1 개

개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가축이다. 양 문화권 동물속담 중에서 개에 관한 속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양 문화권 속담에 등장하는 개는 용맹스럽고 주인에게 충직한 동물로 표현되지만 격이 낮고 비천함을 비유한 속담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속담에서는 개의 비천함을 비유한 욕설을 나타내는 속담도 많이 볼 수 있다.

#### 3.2.1.1 품행면

- ① A dog knows his own master.  
(개도 자기주인을 알아본다.)
- ② A dog with a bone knows no friend.  
(뼈다귀를 가지고 있는 개는 친구를 모른다.)
- ③ Dog will not eat dog.  
(개도 개를 먹지 아니한다.)
- ④ The dog without teeth barks the most.  
(이 없는 개가 가장 많이 짖는다.)
- ⑤ Wash a dog, comb a dog; still a dog.  
(개는 씻으나, 빗질을 해도 개일 뿐이다.)
- ⑥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 ⑦ 저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 ⑧ 개 등의 등겨를 털어먹는다.
- ⑨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

①번 속담은 개도 자기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충직스러운 개를 통하여 사람의 배은망덕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당장 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도 저버린다는 뜻이다. 먹을 것이 주어지면 친구도 저버리는 탐욕스러운 개를 통하여 사람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번 속담은 자신의 종족을 해치지 않는 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행하는 악랄함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과 의미 상통하는 말로 사람의 경망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개가 짖는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의 본성과 성질 그리고 경망스러움 등을 나타내는 속담이 많다. ⑤번 속담은 원래부터 본바탕이 나쁜 것은 아무리 가꾸어도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성은 아예 타고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①번 속담과 비슷한 뜻으로 양 문화권 모두 개를 충직한 동물로 표현하면서 사람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자기가 싫다고 남도 안주는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 많은 마음씨를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에서 개는 사람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⑧번 속담은 저보다 못한 사람을 벗겨 빼앗아 먹는다는 뜻이다. 개를 불쌍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이런 개에 붙어있는 것까지 뺏아먹는 사람의 악랄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은 ⑤번 속담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질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개의 비교대상으로 족제비를 등장시켜 개꼬리와 족제비 털을 비교하면서 족제비만큼도 못한 개의 비천함을 나타내고 있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개의 비교대상 없이 개라는 존재 자체를 비천하게 나타내고 있다.

### 3.2.1.2 인생면

⑩ A snappish dog usually has torn ears.

(사나운 개는 보통 찢어진 귀를 가지고 있다.)

⑪ Better live dog than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⑫ Every dog has his day.

(모든 개에게도 기회가 있다.)

⑬ 사나운 개 입 성할 날 없다.

⑭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⑮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⑩번 속담은 난폭한 사람이 늘 싸움만 하여 상처가 나올 날이 없음을 뜻하거나 또는 남과 시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난폭한 개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인과를 나타내고 있다. ⑪번 속담은 아무리 고생스럽고 천하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에서 개는 권력을 가진 동물의 왕 사자와 비교되면서 가진 것 하나 없고 천하게 사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⑫번 속담은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라는 말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말로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을 살다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⑬번 속담은 ⑩번 속담과 같은 뜻으로 사나운 개를 묘사하면서 인생에서의 인과를 나타내고 있다. 난폭함에 대한 결과는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찢어진 귀가 한국 속담에서는 찢어진 입이라는 서로 다른 부위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단지 시각에 따른 차이로서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난폭함의 결과로 남에게 당한 상처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 속담에서는 난폭한 개가 남을 해치면서 생긴 상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⑭번 속담은 ⑪번 속담과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사람은 그래도 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에서는 개가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가장 높은 수상급 관직인 정승과 비교하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을 보면 개의 비교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개는 항상 비천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⑮번 속담은 ⑫번 속담과 비슷한 의미의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때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은 개를 의인화 시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접적인 비천한 주체로 나타내고 있고 한국 속담에서는 개똥밭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려운 처지의 상황묘사를 하고 있다.

### 3.2.1.3 생활면

⑯ A lazy dog finds no bone.

(게으른 개는 뼈다귀를 얻지 못한다.)

⑰ A dog that has two homes is no good.

(두 집을 갖고 있는 개는 좋지 않다.)

⑱ Never let the same dog bite you twice.

(물렸던 개에게 절대로 다시 물리지 않도록 해라.)

⑲ 개도 부지런해야 더운 똥을 얻어먹는다.

⑳ 두 절의 개 같다.

㉑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⑰번 속담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것을 뜻으로 사람은 근면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⑱번 속담은 두 집에 속한 개가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 얻어먹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돌봐주는 이는 많지만 서로 미루는 통에 아무런 도움도 못 받기 때문에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⑲번 속담은 위험한 상황이나 실패 등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다신 같은 실패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같이 개가 무는 표현을 설정한 것처럼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이러한 개의 무는 특징을 이용한 속담을 많이 볼 수 있다.

⑲번 속담은 ⑰번 속담과 비슷한 뜻으로 사람이 잘 살려면 부지런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 ⑳번 속담 역시 ⑱번 속담과 비슷한 뜻으로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 지조를 지켜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⑰, ⑱번 속담과 ⑲, ㉑번 속담을 비교해보면 영·미 문화권에서 개는 집에 소속되어 있고 뼈다귀가 개의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한국 속담에서는 개가 가난한 절에 속하고 똥이 개의 음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음식의 질이나 개가 속하고 있는 장소를 비교해보면 한국속담

에서의 개가 더 비천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미 문화권에서가 한국문화권 보다 애견문화가 일찍 시작되었고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㉑번 속담은 자신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면 모든 것이 다 그 물건같이 보인다는 뜻이다. 사람은 평소에 한가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개를 소재로 한 한국 속담의 특징 중 하나가 ‘똥’이라는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위 속담들을 보면 개가 좋아하는 것이 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똥’이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은 개를 비천함의 상징으로 보게되고 더 나가 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 3.2.1.5 기타

- ㉒ A dog with money is addressed "Mr. Dog."
- ㉓ 돈만 있으면 개도 멍침지라.
- ㉔ A barking dog never bites.
- ㉕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㉒번 속담과 ㉓번 속담은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돈만 있으면 귀인으로 대접받는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영·미 문화권이나 한국에서의 금권지상주의 사회를 엿볼 수 있다.

㉔번과 ㉕번 속담은 그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무서운 사람일수록 말이 없다라는 뜻으로 양 문화권에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 3.2.2 호랑이

호랑이에 관한 속담은 영·미 문화권 속담에 비해 한국 속담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호랑이가 영·미 문화권보다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영·미 문화권에서는 호랑이를 단지 맹수의 한 동물로 보겠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호랑이를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보고 있고 단군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호랑이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호랑이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신성한 영물로서의 분위기와 함께 친근한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대개 권위나 위엄 그리고 위대한 존재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도 마찬가지다.

#### 3.2.2.1 품행면

① When the tiger is dead, the stag dances on his grave.

(호랑이가 죽으면 사슴이 호랑이 무덤 위에서 춤을 춘다.)

② Clipping a tiger's claws never makes him lose his taste for blood.

(발톱이 잘린다고 결코 호랑이의 살육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

④ 사흘 굶은 범이 원님을 안다더냐.

①번 속담은 호랑이가 있을 땐 죽은 듯이 지내다가 호랑이가 가고 없으면 사슴이 호랑이 행세를 한다는 뜻이다. 별로 잘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대장이 없을 때 대장노릇 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사람의 방자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권력이나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부를 가졌을 때의 교만함이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성은 상황에 맞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번 속담은 ①번 속담과 비슷한 표현으로 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는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뽐낸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사람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모두 용맹스러운 호랑이를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면서 이에 반하는 동물을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사슴을 한국 속담에서는 토끼를 통하여 사람의 교만함과 방자함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몹시 굶주리면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의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과 ④번 속담을 보면 양 문화권 모두 호랑이를 공포스럽고 흉악스러운 맹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은 맹수의 식성을 가진 호랑이를 통해 사람의 탐욕을 나타내는 속담이 많다.

### 3.2.2.2 인생면

⑤ It is better to be a live rabbit than a dead tiger.

(죽은 호랑이보다 산토끼가 낫다.)

⑥ 새벽호랑이

⑦ 노루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⑤번 속담은 남을 군림하거나 권력을 가지지 못할 지라도 죽는 것보다 지배를 당하거나 권력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생은 아무리 천하게 살지라도 살만 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들에 내려왔던 호랑이가 날이 밝게 되면 산에 돌아가야 됨과 같이 세력을 잃고 물러나게 된 신세를 뜻하는 것으로 인생에서의 몰락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일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가거나 또는 작은 해를 피하려고 하다고 도리어 큰 무서운 일에 부딪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에서의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호랑이를 소재로 한 한국 속담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속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속담은 대부분 권세를 가진 호랑이를 통하여 사람의 곤경과 몰락을 나타내거나 호랑이를 무서운 존재로 보면서 인생에서의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3.2.2.3 생활면

⑧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위 속담은 사람은 살아 있을 때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이름이 후세에까지 빛나는 것이니 마땅히 선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에서 호랑이의 가죽은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가죽은 그 질과 기능에 있어서 우수하

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호랑이의 가족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 이는 호랑이의 용맹성 때문에 호랑이를 때려눕힐 만한 용감성을 지녔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호랑이를 통해서 생활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 3.2.2.4 기타

⑨ Tigers and deer do not stroll together.

(호랑이와 사슴은 같이 놀지 않는다.)

⑩ 호랑이와 사슴은 같이 놀지 않는다.

⑪ 범도 제 새끼 곱다고 하면 물지 않는다.

⑨번 속담과 ⑩번 속담은 강한 자와 약한 자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양 문화권 사회에서의 부와 빈 그리고 권력에서의 상·하의 양분화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속담들이 호랑이를 권위와 사나움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⑪번 속담은 호랑이의 새끼에 대한 모성애를 나타내고 있다. 굶주린 호랑이 못지 않게 더 사나운 호랑이는 새끼를 가진 호랑이라는 말처럼 호랑이의 모성애는 그만큼 강하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이런 호랑이의 모성애를 표현한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 3.2.3 소

소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효율성 높은 가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에 등장하는 소는 부지런하고 사람의 농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나 소의 어리석음, 둔함, 고집스러움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 3.2.3.1 품행면

- ① The cow has forgotten she was once a calf.  
(소가 한때 송아지였던 것을 잊는다.)
- ② When a bull once takes hold, nothing can make him let go.  
(한번 황소가 버티고 있으면 그 어느것도 가게 할 수 없다.)
- ③ Faraway cows have long horns.  
(멀리 있는 소가 긴 뿔을 가지고 있다.)
- ④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⑤ 쇠 먹미레 같다.
- ⑥ 훗장에 소다리를 먹으려고 이장에 개다리 안 먹을까?

①번 속담은 현재 만족할 만한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때 초라한 모습의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 속담은 소의 교만함을 통하여 사람의 교만한 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일단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집스러운 황소를 통하여 사람의 고집을

나타내고 있다. ③번 속담은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는 뜻으로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의 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은 소에게 중요하며 또한 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뿔과 소의 관계를 설정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뿔과 소의 관계를 설정하여 나타내는 속담은 양 문화권 속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④번 속담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짓을 한다는 뜻인데 머리에 돌아야 할 뿔이 제자리에 나지 않는 못난 송아지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교만한 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⑤번 속담은 매우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이라고는 도무지 듣지 않음을 나타낸다. ②번 속담은 황소의 고집스러움을 통하여 사람이 고집만 내세우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⑤번 속담은 소의 턱 밑에 있는 질긴 부위를 통하여 사람의 고집을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장래의 큰 희망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적은 이익을 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은 개의 비교 대상인 소의 거대한 외향적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다.

### 3.2.3.2 인생면

- ⑦ The cow must graze where she is tied.  
(소는 매여져 있는 곳에서만 풀을 뜯어야 한다.)
- ⑧ A cursed cow has short horns.  
(저주받은 소는 뿔이 짧다.)
- ⑨ 소한테 물렸다.
- ⑩ 개천에 든 소.

⑦번 속담은 구속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속박 속에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처량함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에서 일정한 야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를 다루는 모습을 이 속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를 매어두는 생활상은 한국 속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서편에 무지개가 서면 개울 너머 소 매지 말라.’가 그 예다. ⑧번 속담은 행실이 나쁜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인생에서의 인과응보를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모두 소와 빨과의 관계를 표현한 속담들이 있지만 이 속담처럼 빨의 길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속담은 영·미 문화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⑨번 속담은 물지 않는 소에 물렸듯이 상대로 여기지도 않던 이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었음을 나타낸다. 이 속담에서 소는 사람을 물지 않는 동물로 표현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⑩번 속담은 개천 속에서는 소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듯이 먹을 것이 많아 유복한 처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양 문화권 속담 대부분이 사람의 행복보다는 힘든 삶이나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⑩번 속담에서는 소를 통하여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3.2.3.3 생활면

⑪ When the cow is stolen, they lock the barn.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⑫ If you play with the bull, you will get a horn in the arse.

(황소와 같이 놀면 엉덩이에 뿔난다.)

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⑭ 기운이 세다고 소가 왕 노릇할까.

⑮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⑪번 속담은 평소에 대비가 없었다가 실패한 다음에 뒤늦게 깨달아 대비함을 뜻한다. 이는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 없기 때문에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⑫번 속담은 못난 사람과 같이 놀면 자신도 못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소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⑬번 속담은 ⑪번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으로 잃은 소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통해 양 문화권에서 소를 중시하는 생활모습을 엿 볼 수 있다. ⑭번 속담은 소가 아무리 기운이 세다할지라도 왕 노릇을 못하듯 지혜 없이 힘만 세다고 남을 거느릴 수 없다는 뜻이다. 소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면서 사람은 지혜롭게 생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⑮번 속담은 나쁜 일일수록 점점 버릇이 되어 나중에는 큰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작은 바늘에 대한 상대적인 존재로 거대한 소를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좋은 버릇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3.2.3.4 기타

⑩ You cannot sell the cow and have the milk.

(소를 팔고 우유를 얻을 순 없다.)

⑪ 소는 농가의 조상

⑩번 속담은 우유를 생산하는 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⑪번 속담은 농가경제에 있어서의 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미 문화권과 한국 문화권에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가축으로서의 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3.2.4 말

말은 신속성과 물자이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쟁에 동원되는 역할부터 마차를 끄는 운송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은 양 문화권 속담에서도 말의 특징인 잘 달리고, 짐을 싣고 나르거나 또는 사람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말의 고집스러움을 표현한 속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3.2.4.1 품행면

① The losing horse blames the saddle.

(말이 지면 안장을 탓한다.)

② He that speaks ill of the mare will buy her.

(암말을 욕하는 사람이 암말을 산다.)

③ You may break a colt but not an old horse.

(망아지는 길들일 수 있지만 늙은 말은 길들이지 못한다.)

④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⑤ 야원 말이 짐 탐한다.

①번 속담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무능력함은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뜻이다. 경마에 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마음을 가진 말을 통하여 사람의 나쁜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남 앞에서 한 가지 물건에 대해 온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되레 자신이 먼저 그 물건을 구입함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을 보면 영·미 문화권에서는 말의 종류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암말에 대하여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속담에서도 ‘한 외양간에 암말만 들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한국 문화에서도 암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번 속담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신념이 확실히 서지 않은 새내기들은 여러 방향의 교육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모두 겪으면서 모든 일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노년층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늙은 말의 고집스러움을 통하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걷다가 말타기를 위하여 말을 얻게 되나 또 그것을 끌고 갈 종까지 두고 싶어진다는 뜻으로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을 태워주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속담이다. 그리고 이 속담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으로 ①번 속담과 함께 양 문화권에서의 경마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⑤번 속담은 몸 약한 사람이 해 내지도 못하면서 남보다 오히려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야위고 마른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함을 뜻한다. 이 속담은 욕심을 부리는 말의 심성을 통하여 사람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다.

#### 3.2.4.2 인생면

⑥ When two ride one horse, one must sit behind.

(두 사람이 한 말을 탄다면 한 명은 뒤에 타야 한다.)

⑦ It takes a young horse to do what an old horse can't.

(늙은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말이 필요하다.)

⑧ 고삐 없는 말.

⑨ 말 머리에 태기가 있다.

⑥번 속담은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다 하고 안하고 싶은 일은 모두 다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고 안하고 싶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사람을 태워주는 운송수단으로서의 말을 통하여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노년층들이 모든 일에 숙련되고 노련하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능히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활력과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은 노년층보

다 젊은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한다. 노년층이 모든 일을 젊은층보다 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노년층도 젊은층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말을 소재로 하여 나타낸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늙은 말이 표현되는 속담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늙은 말의 고집적인 태도나 현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 속담에서는 ‘늙은 말이 콩 마다 할까’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늙은 말과 콩과의 관계 설정으로 콩을 좋아하는 늙은 말의 모습만 볼 수 있다.

⑧번 속담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처지라는 뜻으로 말을 엮매이는 고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소재로 하는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A good horse is worth its fodder’(훌륭한 말은 사료를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나 ‘여물 안 먹고 잘 걷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이 먹는 사료는 물론이고 말과 관계되는 고삐, 재갈, 또는 안장과 같은 도구와 연관하여 표현한 속담들을 볼 수 있다. ⑨번 속담은 혼인에 타고 가는 말머리에 태기가 있다함은 신혼 초에 태기가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처음에 좋은 수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 속담을 보면 말이 혼인할 때도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 3.2.4.3 생활면

⑩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선물로 받은 말의 이를 보지 말라.)

⑪ You can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⑫ Don't put your cart before the horse.

(짐수레를 말 앞에 놓지 말라.)

⑬ 말은 타 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 봐야 안다.

⑭ 말 태우고 버선 킁는다.

⑩번 속담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 흠잡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말의 나이는 치아의 마모 상태로 감별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⑪번 속담은 자기가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곁에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말의 고집스러움을 통하여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너무 남에게 강압적인 강요를 삼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⑫번 속담은 말이 짐수레 앞에 있어야 말이 짐수레를 끌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일이 돌아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짐수레와 짐수레를 끄는 말을 통하여 본말을 전도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⑬번 속담은 곁으로 보아서는 알기 힘들다는 뜻으로 사람은 사람을 사귄 때 곁만 보면서 선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은 말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의 외모나 말에게 씌운 장신구들이 아니라 얼마나 잘 달리는가에 있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을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을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Don’t judge a horse by its harness.’(마구로 말을 판단하지 말라.)가 그 예이다. ⑭번 속담은 일을 미리 준비하여 하지 않고 임박해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에서도 신량을 장가보낼 때 말을 태우는 한국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⑬번과 ⑭번 속담에서 말은 사람을 태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3.2.4.5 기타

⑮ Money makes the mare go.

(돈이면 암말도 간다.)

⑯ 제주 말 제 갈기 뜯어 먹기.

⑮번 속담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영·미 사회에서의 황금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⑯번 속담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각기 제 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말을 소재로 한 속담들 중에서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속담의 특징중 하나는 ‘제주’라는 특정 지역이 나오는 속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말의 명산지인 제주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말 또한 제주의 조랑말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3.2.5 고양이

고양이는 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붕이나 광 등에 반야생적으로 사육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죽이거나,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설은 동양의 여러 나라뿐 아니라 유럽 · 아프리카 등지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을 표현한 한국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양 문화권 속담에 나타나는 고양이는 교활하고 영리하며 쥐를 잡는 동물로 등장하며 속담 대부분이 쥐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표현한 속담들이 많다.

### 3.3.5.1 품행면

① Cats hide their claws.

(고양이가 발톱을 감춘다.)

② The son of the cat pursues the rat.

(고양이 새끼도 쥐를 얻으려고 애쓴다.)

③ 고양이가 발톱을 감춘다.

④ 게 새끼는 집고 고양이 새끼는 할킨다.

①번 속담은 재주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람의 교만함이나 또는 자신의 무기를 깊이 감추는 위선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쥐를 잡아먹고 사는 고양이의 쥐에 대한 욕구는 대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훈련이나 교육 없이도 본능은 이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③번 속담은 ①번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이다. 이처럼 사람의 품행에 관한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대부분 능력 있고 교활한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의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누구나 제가 타고난 천성대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한국 속담에서는 고양이의 활귀는 본성을 나타내고 있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쥐에 대한 탐욕적인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 예일 뿐 양 문화권의 쥐가 각각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양 문화권의 쥐는 공통적으로 위 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을 표현한 속담들을 양 문화권 속담에서 두루두루 볼 수 있다.

### 3.2.5.2 인생면

⑤ A bad cat deserves a bad rat.

(나쁜 고양이에게는 나쁜 쥐가 주어진다.)

⑥ A cat may look at a king.

(고양이도 임금님을 볼 수 있다.)

⑦ 고양이 앞에 쥐.

⑧ 약빠른 고양이 앞은 못 본다.

⑤번 속담은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과 나쁜 음식이 주어진다라는 뜻으로 선한 자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생에서의 인과를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누구나 그 나름의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다. 사람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누구나 삶을 살면서 권리를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몹시 무서워서 찢찢매고 꿈쩍을 못한다는 뜻이다.

고양이를 통하여 인생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를 상과 벌의 관계로 보면서 인생에서의 인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 속담에서는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를 약육강식의 관계로 보면서 쥐를 통해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⑧번 속담은 지나치게 영리하면 때로는 판단을 그르쳐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 영리한 자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생에서의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고양이를 영리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고양이를 하류층의 평범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양 문화권에서 고양이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두 속담 모두 고양이를 통해 사람은 모두 똑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 3.2.5.3 생활면

⑨ Who'll bell the cat?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⑩ There's more than one way to skin a cat without tearing the hide.

(가죽을 찢지 않고 고양이 가죽 벗기는 데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⑪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⑫ 고양이에게 반찬 달란다.

⑨번 속담은 실행할 수 없는 헛일을 쓸데없이 의논함을 뜻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⑩번 속담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은 융통성 없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양이를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불행을 당한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고양이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위 속담에서는 고양이를 희생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며, 영·미인들이 고양이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⑪번 속담은 ⑨번 속담과 같은 뜻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공론을 함을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 모두 쥐가 그 실행자로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쥐에게 고양이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⑫번 속담은 고기 반찬을 즐기는 고양이에게 도리어 그것을 달라고 한다 하여 줄 리가 없으니 전혀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을 뜻하고 있다. 고양이는 보통 쥐를 잡아먹는 동물로 인식되어 있지만 한국 속담에서는 위 속담처럼 고양이와 쥐 외의 음식과의 관계를 설정한 속담을 많이 볼 수 있다.

#### 3.2.5.4 기타

⑬ A cat has nine lives

(고양이는 아홉 목숨을 가지고 있다.)

⑭ 양반의 새끼는 고양이 새끼요, 상놈의 새끼는 돼지 새끼다.

고양이는 모진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영·미 문화권 속

담에서는 ⑬번 속담에서처럼 모진 목숨을 가진 고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 속담에서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이 표현된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⑭번 속담은 고양이 새끼는 태어날 때는 조잡하지만 클수록 운택해짐을 뜻한다. 이 속담에서 표현된 고양이의 성질을 타 동물과 비교하여 고양이를 고급적인 동물로 보고 있는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다.

### 3.2.6. 쥐

쥐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훔칠 뿐 아니라 오염시키며 균을 옮겨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동물이다. 이러한 쥐를 소재로 한 속담은 영·미 문화권 속담보다 한국 속담이 훨씬 많다. 이는 쥐가 한국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존재하여 한국인의 의식에 쥐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쥐는 12지신(支神)에서 자식이라는 뜻의 자(子)로 표시되어 첫 번째 자리에 놓여있다. 그리고 쥐는 훔치는 행위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반면에 부지런히 먹이를 모으는 근면성이 높이 평가되어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며 무한히 늘어나는 왕성한 번식력을 높이 사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 문화권 속담의 소재로 사용되는 쥐는 긍정적인 면이 비유되기보다는 대부분 도둑을 가리키며 작거나 하찮음에 비유하고 있다.

### 3.2.6.1 품행면

- ① Don't throw water on a drowned rat.  
(물에 빠진 쥐에게 물을 뿌리지 말라.)
- ② Even a rat, when cornered, will turn and fight.  
(쥐도 궁지에 몰리면 돌아서서 싸운다.)
- ③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 ④ 고양이 쥐 생각.

①번 속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람의 악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속담에도 '물에 빠진 새앙쥐'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사람이 불운하여 기운을 못차림을 뜻한다. 양 문화권 속담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쥐가 물에 빠지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번과 ③번 속담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면 강적에게 용기를 내어 달려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 문화권 속담에서 쥐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몸을 보호할 만큼 용기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쥐를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쥐에 대한 강적을 한 가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 속담에서는 쥐에 대한 강적을 고양이로 표현하고 있다.

④번 속담은 마음 속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척 한다는 것으로 사람의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쥐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은 고양이

이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대부분 사람의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 3.2.6.2 인생면

⑤ Better a mouse in the pot than no flesh at all.

(고기가 없는 것보다는 단지 안의 쥐가 낫다.)

⑥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⑦ 새양쥐 불가심 할 것도 없다.

⑤번 속담은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자도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운수가 펴질 날이 있다는 뜻으로 인생에서의 호기를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작은 새양쥐가 좁 입맛 다셔 먹을 것도 없다는 것으로 매우 가난함을 나타내고 있다.

쥐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이 작은 쥐의 가치를 인정하는 반면 한국 속담에서는 쥐를 하찮은 존재로 보면서 이런 쥐를 통하여 불행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인생을 나타내고 있다.

### 3.2.6.3 생활면

⑧ The mouse which has but one hole is soon caught.

(구멍 하나만 갖고 있는 쥐는 빨리 잡힌다.)

⑨ Sell your goods at market price; keep it not for rats and mice.

(물건들을 쥐를 위해 놔두지 말고 시가로 팔아라.)

⑩ 쥐구멍으로 소 물려한다.

⑪ 물라는 쥐나 물지 씨암탉은 왜 물어.

⑧번 속담은 변통할 다른 대안이 없으면 피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사람은 한가지에 모든 것 걸지 말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은 아껴서 남겨둔 물건들은 결국 상해서 못 쓰게 되거나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제때 사용하여야 함을 뜻하고 있다. 그저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기에 사용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⑩번 속담은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함을 뜻한다.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 되고 되지 않을 일을 잘 판단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⑧번 속담에서의 쥐구멍은 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피난처로서 나타나고 있고 ⑩번 속담에서의 쥐구멍은 그저 작은 구멍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쥐구멍의 기능은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두 속담 모두 쥐구멍을 통해 사람이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⑪번 속담은 고양이가 물어 없애야 할 것은 곳간의 쥐인데 아끼는 씨암탉은 물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우선 해야지 그 밖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 문화권에서 쥐는 모두 곡식을 훔치는 도둑으로 표현되고 있다. ⑪번 속담에서는 직설적으로 쥐가 곡식을 훔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곳간의 쥐를 고양이가 물어 없애기를 바라

는 심정은 쥐가 곳간의 곡식들을 훔쳐먹기 때문이라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다.

### 3.2.7 돼지

한국 문화에서는 흔히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영·미 문화권에서는 돼지는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사람에게 ‘돼지’ 또는 ‘돼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한 욕이다. 돼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노골적으로 돼지를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속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돼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문화권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진 돼지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돼지를 통해서 보는 양 문화권 속담을 보면 돼지는 보통 지저분하고 무가치하며 먹을 것이나 탐내는 비천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

#### 3.2.7.1 품행면

- ① The pig furthest from the trough squeals loudest.  
(여물통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돼지가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른다.)
- ② A pig on the parlor is still a pig.  
(돼지는 거실에 있어도 여전히 돼지다.)
- ③ 돼지가 그려 붙이겠다.

①번 속담은 음식이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게 될

까봐 걱정되어 조용히 기다릴 줄은 모르고 큰소리고 떠들어대며 달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지저분하고 비천한 돼지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에 있다하여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다른 무리의 군중 속에 있든 다른 무리가 사는 장소에 있든 간에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돼지를 통하여 본성을 나타내는 속담이 없는 반면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돼지를 더럽고 듣기 흉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면서 바뀔 수 없는 본성을 나타내는 속담이 많다.

③번 속담은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자기 혼자 먹으며 가까운 사이인 사람과 나누어 먹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들은 ①번과 ③번 속담처럼 양 문화권 모두 돼지를 통하여 대부분 사람의 탐욕스러운 성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영·미 문화권 속담들은 돼지와 사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속담들이 많다.

### 3.3.7.2 인생면

④ Even a blind pig occasionally picks up an acorn.

(눈먼 돼지조차도 때로는 옥수수를 주울 때 있다.)

⑤ 죽은 석승보다 산 돼지가 낫다.

④번 속담은 살다보면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지만 힘든 삶 속에서도 가끔은 행운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돼지에게는 먹을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돼지와 옥수수와의 관

계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호기를 나타내고 있다

⑤번 속담은 아무리 괴롭고 천하게 산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돼지를 비천한 존재로 보면서 죽는 것보다 돼지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3.3.7.3 생활면

⑥ Above all things keep clean: it is not necessary to be a pig in order to raise one.

(무엇보다도 깨끗이 해라: 돼지를 키우기 위하여 돼지가 될 필요는 없다.)

⑦ Don't 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⑧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

⑨ 돼지우리에 주식 자물쇠.

⑥번 속담은 상대방이 더럽다고 해서 자신도 더러울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항상 깨끗하게 생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무가치하고 더러운 자에게는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도 그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⑧번 속담은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과 사귀기를 좋아한다는 말로 깨끗한 사람과 사귀기를 원한다면 자신부터 깨끗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은 제 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치장을 한다

는 뜻으로 자신의 격에 맞게 가꿔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는 양 문화권 속담 모두 돼지는 지저분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무가치한 존재에 대하여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영·미 문화권에서는 빛나는 보석인 진주가 쓰이고 있고 한국 속담에서는 주석자물쇠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중요한 물건은 두는 농을 잠그기 위하여 주석자물쇠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 3.3.7.4 기타

⑩ You can't make a cigar out of a pig's tail.

(돼지꼬리로는 담배도 못 만든다.)

⑪ 칠푼짜리 돼지 꼬리 같다.

⑫ When you see a pig, you should kick it.

(돼지를 보면 발로 차라.)

⑬ A pet person and a pet pig are the worst pets of all.

(사람과 돼지는 가장 나쁜 애완동물이다.)

⑭ 꿈 속에 돼지가 깃을 물어들이면 비가 온다.

⑮ 꿈에 돼지를 잡으면 길하고, 돼지가 저절로 죽으면 흉하다.

⑩번과 ⑪번 속담에서는 돼지가 아무리 크고 좋더라도 그 꼬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속담들로 양 문화권에서 돼지꼬리에 관한 비슷한 생각을 볼 수 있다.

⑫번과 ⑬번 속담에서는 영·미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이 돼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문화를 엿 볼 수 있다.

⑭번과 ⑮번 속담은 꿈과 연결된 속담이다. ⑮번 속담을 보면 모든 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꿩속의 꿩은 확실히 손아귀에 쥐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됨을 알 수 있다.

### 3.2.8 토끼

귀엽고 애완동물로 취급되는 토끼가 양 문화권 속담에서는 겁 많고 힘이 없는 약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토끼는 가장 쉬운 사냥의 대상이며 제일 가치 없는 사냥감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 3.2.8.1 품행면

① Don't think to hunt two hares with one dog.

(한 마리 개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라.)

② 달아나는 노루보고 얻은 토끼를 놓쳤다.

①번 속담은 사람이 욕심을 너무 크게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얻으려다가 결국은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②번 속담 역시 너무 큰 욕심을 내다가 결국 자기 손에 있던 것까지 잃고 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두 속담처럼 토끼 사냥과 관련된 속담은 욕심을 내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등의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 ①번 속담에서는 토끼를 너무 쉬운 사냥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②번 속담은 토끼가 사냥의 대상으로는 다른 동물에 비해 가치 없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에서 토끼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그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 3.3.8.2 인생면

③ The timid hare dares to pluck the dead lion by the beard.

(겁 많은 토끼도 죽은 사자의 수염을 뽑는다.)

④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토끼도 깔본다.

③번 속담은 권세가 아주 막강하고 두려움의 존재였다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하찮은 존재들에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 역시 권세가 아무리 막강했더라도 힘이 없어지면 모두가 다 무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권위나 위대한 상징으로서 영·미 문화권에서는 사자로 한국 속담에서는 호랑이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문화권에서 보통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가 아닌 호랑이로 표현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사자보다 더 우리 생활과 가까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양 문화권 속담에서 토끼는 권세나 위엄을 가진 존재와 반대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놀라 반응을 하는 토끼의 특징 때문에 겁이 많고 나약한 존재를 비유할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3.2.8.3 생활면

⑤ First catch your hare, then cook it.

(먼저 토끼를 잡고 요리는 그 다음에 하라.)

⑤번 속담은 먼저 현물을 손에 넣으라는 뜻으로 준비 없이 일을 먼저 벌여 놓을 것이 아니라 미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은 영·미인들이 토끼를 잡아먹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속담에서 이러한 표현을 나타낸 속담은 없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속담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토끼를 잡는 것과 연관돼 있다.

### 3.3.9 당나귀

보통 당나귀는 수송 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이러한 수송수단으로서의 당나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당나귀를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속담이 많다. 한국 속담에서는 당나귀를 대부분 도움이 안되거나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다.

#### 3.2.9.1 품행면

① An ass is an ass, though laden with gold.

(비록 금을 싣고 있다 하더라도 당나귀는 당나귀에 지나지 않는다.)

② 당나귀 못된 것은 생원님만 업신여긴다.

①번 속담은 당나귀가 아무리 귀중한 보배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거나 또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당나귀일 뿐이다라는 뜻이다. 즉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중요한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똑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은 ①번 속담처럼 아무리 치장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당나귀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의 속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번 속담은 천하고 못된 자가 인품 좋고 짐작은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뜻으로 자기의 주제도 모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못난 행실을 나타내고 있다.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은 ②번 속담처럼 당나귀와 생원님과과의 관계설정으로 생원님과는 상대적인 당나귀를 하찮은 존재로 보면서 대부분 사람의 오만함을 나타내고 있다.

### 3.3.9.2 인생면

③ There are a great many asses without long ears.

(세상엔 긴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훌륭한 당나귀들도 많다.)

④ 마방집이 망하려면 당나귀만 들어온다.

③번 속담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훌륭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고 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좋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해서 훌륭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훌륭하고 비천한

존재를 가늠하는 기준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당나귀의 외향적인 특징 중 하나가 당나귀의 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나귀의 귀에 비교하듯이 보통 큰 귀를 가진 당나귀가 훌륭하다는 말에서 나온 속담이라 볼 수 있다.

④번 속담은 마방집이 망하려고 하면 죽을 먹는 말은 들어올 생각을 앓고 날것만 먹는 당나귀만 들어온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잡것만 끼어 들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처럼 당나귀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은 보통 당나귀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 3.3.9.3 생활면

⑤ A donkey that carries the load is more decent than a lap dog that lives in idle luxury.

(짐을 나르는 당나귀가 호화롭게 사는 애완용 개보다 훨씬 훌륭하다.)

⑥ 도련님은 당나귀가 제 격이다.

⑤번 속담은 곁을 치장하여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사람은 꼭두각시인형처럼 살 것이 아니라 직접 땀을 흘리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⑤번 속담처럼 당나귀가 사람을 태워주고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사

람을 발로 차는 말이나 애완용 개와 비교하면서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⑥번 속담은 무엇이든지 신분에 따라서 물건을 써야 격에 맞는다는 뜻이다. 쓰는 물건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정도로 자기신분에 맞는 물건을 쓸 줄 알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당나귀를 하찮은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한국 속담과 달리 ⑥번 속담은 당나귀가 남의 신분에 맞춰줄 수 있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당나귀가 단지 도련님이라는 신분에 격을 맞춰주는 존재로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국 속담의 당나귀의 모습은 당나귀의 역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영·미 문화권에서의 당나귀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3.2.10 닭

닭은 달걀과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이다. 이러한 닭을 소재로 한 영·미 문화권 속담 대부분은 보통 닭과 달걀의 관계를 설정하여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속담에서는 닭과 달걀의 관계를 설정하여 표현된 속담은 찾아 볼 수 없고 닭 잡는 내용과 관계된 속담을 많이 볼 수 있다.

#### 3.2.10.1 품행면

① A stingy man gives an egg to get a chicken.

(인색한 사람은 닭을 얻기 위하여 달걀을 준다.)

② 내 노랑 병아리만 내라 한다.

①번 속담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욕심과 억지를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 역시 억지를 부리고 무엇을 해 달라고 고집 쓴다는 뜻으로 사람의 억지와 고집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에서 사람의 부정적인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은 위 ①번 속담 외에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반면 한국 속담에서는 닭을 통하여 사람의 고집스러움과 분별 없고 얽치없는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을 많이 볼 수 있다.

### 3.2.10.2 인생면

③ A black hen always lays a white egg.

(검은 닭도 항상 흰 계란을 낳는다.)

④ Curses like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병아리처럼 저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③번 속담은 겉모습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달라도 하는 일은 다 같다라는 뜻으로 인종에 따라 그 능력과 주어지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한국 속담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뜻으로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기에게 해로운 결과가 돌아간다는 인생에서의 인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은 영·미 문화권 속담 Chickens will

always come home to roost(병아리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병아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속담을 이용하여 표현된 속담이다.

⑤번 속담은 일이 실패가 되어 어찌할 수가 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곤경에 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닭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속담 대부분은 사람의 일시적인 난처한 상황과 기운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많이 표현하고 있다. 반면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이나 사회속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3.2.10.3 생활면

⑥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알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말라.)

⑦ It's better to be the beak of a hen than the tail of an ox.

(소의 꼬리가 되는 것 보다 닭의 부리가 되는 게 낫다.)

⑧ First hen cackled, first hen laid.

(먼저 우는 닭이 먼저 알을 낳는다.)

⑨ 알까기 전에 병아리 세지 마라.

⑩ 닭 벼슬이 뿔망정 쇠꼬리는 되지 마라.

⑥번 속담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이득을 셈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이 지레짐작으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크고 훌륭한 자의 뒤통무늬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고 보잘 것 없는 데서 우두머리

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⑧번 속담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일일 성사시킨다는 뜻으로 사람은 부지런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은 ⑥번 속담과 같은 속담으로 일이 성사되기 전에 미리 그 결과에 맞추어 행동하는 양 문화권 사람들의 서두르는 생활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⑩번 속담 역시 ⑦번 속담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속담으로 양 문화권 모두 훌륭하고 보잘 것 없는 대상을 닭과 소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미 문화권에서는 닭의 부리로 한국속담에서는 닭의 벼슬로 보잘 것 없는 데서의 우두머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예부터 닭의 벼슬을 보고 닭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를 구분해 왔기 때문이다.

양 문화권 모두 닭을 소재로 한 속담 중에서 사람의 생활에 관한 속담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3.2.10.4 기타

⑪ It is a sad house where the hen crows louder than the cock.

(수탉보다 암탉이 더 크게 우는 집은 좋지 않다.)

⑫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⑬ 닭 잡아먹고 이웃 인심 잃는다.

⑪번 속담과 ⑫번 속담은 집 안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활발하여 더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으로 양

문화권 모두 닭을 통하여 남성우월주의의 사회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속담에는 유난히 닭 잡는 이야기와 손님 대접이야기가 많은데 ⑬번 속담이 그 예다. 이는 농촌에서는 대개 닭을 사육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손쉽게 잡을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 대접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 3.2.11 새

새를 소재로 한 양 문화권 속담에서는 구체적인 새의 여러 종류를 소재로 하는 속담은 선택하지 않고 날 수 있는 조류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새라고 표현한 속담들만 참고하였다. 새가 등장하는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보통 새의 특징인 새가 날아다닌다는 표현과 새와 날개와의 관계를 나타낸 속담들이 많다.

#### 3.2.11.1 품행면

- ① Two birds of prey seldom hunt together.  
(두마리의 육식 새는 결코 함께 먹이를 찾지 않는다.)
- ② Every bird likes to hear himself sing.  
(모든 새는 자신의 노래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
- ③ 가을바람의 새털 격이다.
- ④ 새 한 마리도 백 놈이 갈라 먹는다.

①번 속담은 육식 새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나설 때는 자신의 종족도 해칠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속담으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도 해칠 수 있다는 악랄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자화자찬하는 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노래하는 것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연관된 것으로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②번 속담처럼 새와 노래와의 관계를 나타낸 속담들이 있지만 한국 속담에서는 새와 노래와의 관계 설정을 한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③번 속담은 가벼운 새털이 가을 바람에 맥없이 휘날리듯 사람의 꺾꺾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의 새의 것은 보통 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또는 추하거나 아름다운 새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③번 우리 속담에서는 꺾꺾하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 속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람이 의가 좋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의 착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속담은 보통 새를 통하여 사람의 품행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영·미 문화권 속담과 달리 사람의 품행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3.2.11.2 인생면

⑤ Every high-flying bird must at some time light.

(높게 나는 모든 새는 언젠가는 내려앉아야 한다.)

⑥ 풀 끝에 앉은 새.

⑤번 속담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 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항상 좋은 자리나 높은 자리에만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비록 높게 날 수 있지만 쉬기 위해서는 내려앉아야만 하는 새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은 영원한 권력을 가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은 안심이 안 되고 불안스러운 처지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⑥번 속담처럼 새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한국속담들은 보통 위태롭거나 불안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3.2.11.3 생활면

⑦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털의 새가 한 데 모인다.)

⑧ Spoken words are like flown birds: neither can be recalled.

(말은 날아간 새와 같다: 둘 다 되돌릴 수 없다.)

⑨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⑩ 같은 깃의 새는 같이 모인다.

⑪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을 새가 듣는다.

⑦번 속담은 사람은 서로 친구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비슷한 성격이나 처지와 어울리게 된다는 뜻으로 좋은 무리와 사귀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르게 생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⑧번 속담은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신중히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⑨번 속담은 부지런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⑩번 속담은 ⑦번 속담과 같은 뜻의 속담으로 동류끼리는 같이

모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양 문화권의 비슷한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⑪번 속담은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으로 ⑧번 속담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속담이다. ⑧번 속담은 단지 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도 한 번 뱉으면 이미 그 시점에서는 사라져 버려 다시 그 말을 되돌릴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⑪번 속담은 새를 의인화시켜 사람이 말할 때 항상 뒤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시켜주고 있다.

### 3.2.12 물고기

물고기를 통해서 보는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특징을 고려하여 물과 고기의 관계를 많이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물고기와 낚시 또는 미끼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표현된 속담들이 많고 한국속담에서는 물고기와 그 물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표현된 속담들이 많다.

#### 3.2.12.1 품행면

① No fish was ever so full he wouldn't bite at something.

(너무 배가 불러 어떤 것을 물려고 하지 않는 물고기는 없다.)

② 잔 고기 가지 세다.

①번 속담은 물 것 만 있다면 계속 입질하려는 물고기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눈앞에 보이면 거

절을 안 하는 사람의 탐욕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비록 몸집이 자그마하게 생겼다하더라도 속은 아물고 단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본 사람의 품행에 관한 속담은 위 속담들 외엔 찾아볼 수가 없고 영·미 문화권 속담이 사람의 부정적인 품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 속담에서는 사람의 품행이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3.2.12.2 인생면

③ 텃에 치인 범이요, 그물에 걸린 고기라.

③번 속담은 곧 죽을 처지에 이르러 어쩔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에서의 곤경에 빠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물고기를 통해서 본 한국 속담에서는 물고기가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그물에 걸리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나 궁지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들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많다. 반면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물고기를 통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속담은 찾아볼 수가 없다.

### 3.2.12.3 생활면

④ A fish wouldn't get caught if it kept its mouth shut.

(물고기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잡히지 않는다.)

⑤ Big fish are caught with little hooks.

(큰 물고기도 작은 낚싯대로 잡힌다.)

⑥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⑦ 짚그물로 고기를 잡을까.

④번 속담은 화를 당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조심한다면 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나타내고 있고 ⑤번 속담은 큰 사람도 작은 것으로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자만하지 말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들은 물고기를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고기의 모습을 투여하고 있다.

⑥번 속담은 자기 덕이 커야 남이 많이 따른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덕을 키워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고기와 물과의 관계설정을 통하여 사람과 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짚으로 만든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듯 든든한 것으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은 항상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은 ⑤번 속담처럼 고기와 낚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이 많고 한국 속담은 ⑦번 속담처럼 고기와 그물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물고기를 통해서 본 영·미 문화권 속담은 한국 속담에 비해 사람의 생활에 관한 속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의 자만과 서두름 그리고 신중에 관한 내용이 많다.

### 3.2.13 까마귀

한국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본다. 까마귀를 소재로 한 한국 속담에서도 까마귀를 흉조로 나타내고 있는 속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사람의 악랄함이나 음흉함을 나타내고 있다.

### 3.2.13.1 품행면

① A crow is no whiter for being washed.

(까마귀는 아무리 씻어도 희어지지 않는다.)

② Crows weep for the dead lamb and then devour him.

(까마귀는 처음엔 죽은 양을 보고 슬퍼하지만 그 다음엔 집어 삼킨다.)

③ 까마귀 학이 되랴?

①번 속담은 원래 소질이 나쁜 사람은 못 고친다라는 뜻으로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②번 속담은 속으로는 좋으면서 일단 겉으로는 남의 아픔에 대하여 아파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남을 해친다라는 뜻이다. 까마귀의 악랄한 성질을 통하여 사람의 위선과 악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은 까마귀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사람의 악한 면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③번 속담은 ①번 속담과 같은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영·미 문화권 속담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될 수 없음을 색을 이용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속담은 전통적으로 아름답고 고운 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흰색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한국 속담에

서는 음흉한 까마귀와 선하고 아름다운 학을 대조하면서 본성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2.13.2 기타

④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고 밤에 까마귀가 울면 대변이 있다.

④번 속담은 까마귀를 불길한 전조를 보여주는 흉조로 보고 있는 표현으로 한국속담은 이렇게 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있는 속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보고 있는 속담은 찾아볼 수 없다.

### 3.2.14 파리

파리는 더러운 곳에서 생기며 전염병을 옮겨 해를 끼치는 곤충이다. 하지만 파리를 통해서본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파리가 더럽고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고 대부분의 속담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3.2.14.1 품행면

①말꼬리에 파리 같다.

위 속담은 남의 세력에 기운을 얻어 위세를 보인다는 뜻으로 사

람의 위선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들을 보면 파리는 남의 세력에 달라붙는 존재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아는 척 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파리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사람의 품행에 관한 속담은 찾아볼 수가 없다.

#### 3.2.14.2 생활면

##### ② Eagles don't catch flies.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 ③ 독수리는 파리를 못 잡는다.

②번 속담과 ③번 속담은 같은 뜻의 속담으로 각자 능력에 맞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속담 모두 파리를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비교 대상을 독수리를 선택하고 있다. 위 속담들이 작고 보잘 것 없는 파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작은 파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속담을 볼 수 있다.

##### ④ A fly may conquer a lion

(파리도 사자를 이길 수 있다.)

위 속담은 약한 존재가 항상 강한 존재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

나라 때론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에서는 작고 보잘 것 없는 파리가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파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한국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 3.2.15 벼룩

벼룩을 통해서 본 양 문화권 속담들을 보면 벼룩은 학대받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속담에서는 벼룩을 통하여 사람의 인색하고 치사한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더럽고 보잘 것 없는 벼룩을 통하여 사람의 생활을 나타내는 속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3.2.15.1 품행면

① Do not flay a flea for hide and tallow.

(가죽과 수지를 얻기 위해 벼룩을 강탈하지 말라)

②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위 속담들은 극히 적은 이익을 치사한 방법으로 얻는다는 뜻이다. 한국속담에서는 학대받는 벼룩을 통하여 벼룩에게 행하는 사람들의 나쁜 품행을 나타내고 있고 영·미 문화권 속담에서는 미미한 존재인 벼룩에게 행하는 사람들의 더럽고 치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람의 부정적인 품행을 나타내는 속담은 한국 속담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3.2.15.2 생활면

③ If you lie down with dogs, you'll get up with fleas.

(개와 함께 자면 벼룩과 함께 일어난다.)

위 속담은 ‘근목자혹’의 뜻으로 더러운 것은 처음부터 멀리해야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에 영·미 문화권 사람들의 벼룩을 멀리 하려는 생활태도가 나타나 있다.

### 3.2.16 벌레

벌레라 하면 사람·짐승·새·물고기·조개 따위를 제외한 작은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영어 worm으로 표현되는 단어도 지렁이나 거머리 등의 발 없는 연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한국 속담에서는 벌레라는 단어와 지렁이나 거머리 등의 단어를 통해 표현된 속담들을 참고하였다.

벌레를 통한 양 문화권 속담들은 보면 벌레는 대부분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 3.2.16.1 품행면

① The worm will turn.

(벌레도 뒤집는다.)

- ②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③ 못된 벌레 장관 방에서 모로 간다.

①번과 ②번 속담은 같은 뜻의 속담으로 아무런 보잘 것 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너무 무시하면 반항한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약한 사람도 용기와 오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양 문화권 모두 벌레를 하찮은 존재로 보는 벌레에 대한 같은 시각을 볼 수 있다.

③번 속담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짓을 한다는 말로 한국 속담에서는 벌레를 하찮은 존재 이외에 마음이 불량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못된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다.

#### 3.2.16.2 인생면

- ④ The worm is always wrong when it argues with the chicken.

(벌레는 닭과 말다툼을 할 때는 항상 그르다)

- ⑤ 하늘 밑에 벌레

④번 속담은 자신 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도 그 옳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없는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⑤번 속담도 대자연 앞에서의 힘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④번과 ⑤번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양 문화권에서는 벌레를 존대 받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3.2.16.3 생활면

⑥ He who makes a worm of himself should not holler when trampled upon.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짓밟혀도 소리질러서는 안 된다.)

⑦ 똥 벌레가 제 몸 더러운 줄 모른다.

⑥번 속담은 자신이 벌레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남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자신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⑦번 속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추한 점이나 결점을 모른다는 뜻으로 남의 결점을 찾기 앞서 자신의 결점부터 알고 지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활면에서도 양 문화권 모두 벌레를 멸시해도 되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때로는 벌레를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속담도 있다.

⑧ Every worm has his turn.

(모든 벌레는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⑨ 소리 없는 벌레가 벽 뚫는다.

⑧번 속담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벌레를 하찮은 존재로 보고는 있으나 그 존재를 존중하고 있는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⑨번 속담은 말없는 사람이 실천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존재로 보고있는 다른 속담과 달리 벌레를 좋게 표현하고 있다.

### 3.2.17 개구리

개구리를 통해서 본 영·미 문화권 속담들은 개구리가 연못에 산다는 특징을 가지고 개구리와 연못과의 관계를 많이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터전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한국 속담들은 이러한 관계보다는 개구리와 올챙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사람의 품행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3.2.17.1 품행면

##### 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위 속담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어렵게 지냈거나 미천했던 옛 일은 생각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난 체 하며 호기만 부린다는 뜻으로 개구리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 대부분이 위 속담처럼 사람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다.

개구리를 통해서 사람의 품행을 나타내는 영·미 문화권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 3.2.17.2 인생면

- ② When a frog flies into a passion, the pond knows nothing of his tantrum.

(개구리가 화를 내도 연못은 개구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위 속담은 사람이 화를 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그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개구리와 연못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해 주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몰라주는 인생에서의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개구리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한국 속담은 찾아 볼 수 없다.

### 3.2.17.3 생활면

- ③ Better to be a big frog in a little pool than a little frog in a big pool.

(큰 못 속의 작은 개구리 보다 작은 못 속의 큰 개구리가 되는 게 낫다.)

- ④ 우물 안 개구리

③번 속담은 크고 넓은 세계에서 소인이 되는 것 보다 좁은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남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보다 타인의 모범이 되고 남을 이끌어 주는 생활

이 낮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④번 속담은 보고들은 것이 없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으로 우물 밖의 넓은 세상에서 견문을 넓혀 세상의 사정을 알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위 속담들을 보면 개구리가 물에서 산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내고 있는 물웅덩이 안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하고 또한 그 웅덩이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개구리와 물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대부분 표현되는 영·미 문화권 속담과는 달리 한국 속담에서는 ④번 속담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 4. 결 론

언어와 문화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을 끼치며 발달해 왔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가 언어 형식에는 통달하여도 그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편의 하나로 문화학습자료중의 하나인 속담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속담과 영·미 문화권 속담 중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양 문화권 속담속에서 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동물들을 통해 양 문화권 속담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3장에서 각 속담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각 속담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양 문화권 속담들이 상당부분 비슷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뿐만 아니라 ‘Cats hide their claws’와 ‘고양이가 발톱을 감춘다’처럼 내용이 똑 같은 속담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속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오랜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생겨났고, 그리고 각 문화권을 초월해서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문화권에서든 원초적으로 동물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양 문화권 속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다.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동물이 있었고 또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속담의 표현에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다. 호랑이를 소재로 하는 속담은 한국 속담에서가 영·

미 문화권 속담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쥐도 한국 속담에서 더 많이 등장하였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돼지와 까마귀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돼지에 관해서는 영·미 문화권에서가 더 노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 속담이 많고 까마귀는 한국 속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속담이 많았다.

양 문화권 속담 하나 하나의 표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제는 같으나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이나 비교대상은 유사한 점도 있으나 대부분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양 문화권 속담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묘한 차이나 유사성을 비교하고 찾아내는 것은 문화학습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양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속담도 생활양식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속담이 생기겠지만 지혜와 진리를 지닌 속담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속담이 영어 학습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속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속담에 관심을 갖고 속담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이종철. 2003. 우리 속담 바르고 창의적으로 쓰기 서울: 이회.  
1992. 고사성어, 속담해설 서울: 동신문화사.
- 김종대. 1997. 개띠: 12띠의 민속과 상징 서울: 국학 자료원.
- 이창식. 1998. 호랑이띠: 12띠의 민속과 상징 서울: 국학 자료원.
- 최근학. 1996. 한국속담사전 서울: 문화출판공사.
- 천진기. 2003.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국어국문학회. 1990. 새국어대사전 서울: 송강출판사.
- 박명규. 1992. “한국어와 영어권 문화에 기초한 속담의 비교 연구와 그 지도 방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주. 1963. “속담의 감화성” 서울사대학보 제4호 pp.65-66.
- Wolfgang Mieder, Stewart A. Kingsbury & Kelsle B. Harder.  
1992 A Dictionary of American Proverb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John Simpson. 1998.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roverbs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n, J. et al. 1973.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Random House.
- [www.Hometopia.com/proverb](http://www.Hometopia.com/proverb)  
[www.twinpapa.com.ne.kr](http://www.twinpapa.com.ne.kr)  
[www.urimal.cs.pusan.ac.kr](http://www.urimal.cs.pusan.ac.kr)  
[www.100.naver.com](http://www.100.naver.com)

[www.encyclopedia.com](http://www.encyclopedia.com)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imal Proverbs and English Animal Proverbs**

Lee Jung Im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successfully without knowing their socio-cultural backgrounds. A successful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understanding thoroughly the socio-cultural and emotional backgrounds of the target language.

Language and culture being closely related and interwoven, we cannot understand or use a foreign language without the cultural knowledge of that language.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wo cultures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n this study, the Korean animal proverbs and English animal proverbs have been chosen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ultures. Proverbs are the mirror reflecting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interests, needs and wisdom of the nation. The deeper understanding and the more proper use of proverbs can make the speakers understand not only the wisdom of life but

also enhance the effective ability in communication.

In this study animals have been selected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appearance in Korean animal proverbs and English animal proverbs. Animals such as dog, horse, cow and cat which have lived with people and are familiar to them are appeared frequently in both proverb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try to compare the images of animals expressed in the two languages and examine both the common points of view and different ones through the images of animals by classifying the proverbs of the two cultures into 3 parts- conduct, man's life, living - according to their subjects.

The two cultures have many common proverbs which express similar meanings in spite of the different cultures. The common proverbs which have similar meanings come from a similar understanding about animals in both cultures. Also, some proverbs which express different meanings have been found. It is due to a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animals in the two cultures.

Proverbs made through long experience and common sense have instructive aspects. They are a precious legacy. To find out a similar or different proverbs of two cultures can have great interest for students. So proverbs can be effectively used as materials in learning cultures.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somewhat for our English education.